



시민들이 직접 책을 갖고 나와 신나는 장터를 벌인 '외우 책시장'

거리로 나온 책과 떠난 가을소풍!

책을 매개로 출판, 예술, 지역 주민이 함께 한 문화 축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대 부근 거리에서 열린 제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은 청춘의 열기가 가득한 소비의 거리, 홍대 앞을 흥겨운 지성과 문화 축제의 한마당으로 바꿨다. (사)한국출판인회의가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과 마포구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주로 한정된 전시장내에서 열리던 기존 도서전 행사와는 달리, 누구나 직접 책을 들고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펼쳐진 행사란 점에서 남다르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가족·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책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책도 사고, 저자도 만나며, 책과 관련된 색다른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책잔치 현장을 스케치했다.



1 재활용상상놀이단의 흥겨운 개막식 공연 2 인기를 끈 어린이·청소년 부스 3 주차장 거리에 설치된 참가 출판사들의 도서 부스들.

이번 행사는 '오감 만족의 새로운 독서문화'라는 페스티벌의 모토에 걸맞게 읽기 중심의 독서에서 벗어나 책을 고리로 연극, 낭독, 음악, 전시, 놀이가 함께 뒤섞이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었다. 1일 오전 주차장 거리에서 열린 공식적인 부스 개막식을 포함해 나흘 동안 계속된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크게 <거리로 나온 책>, <함께 읽는 책>, <우리가 쓰는 책>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거리로 나온 책, 즐거운 여행을 떠나다

<거리로 나온 책>은 길에 설치된 도서 부스에서 각 출판사들의 도서 전시 및 판매가 이뤄지는 거리도서전과 각종 공연, 전시, 저자와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9월 30일 저녁 7시, 카페 '이리'에서 벌어진 '낭독의 밤' 프로그램에서는 시인 장석남이 시집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 소설가 김경옥이 <장국영이 죽었다고?>를 낭독하면서 가을비와 함께 시의 음울에 젖어 들었다.

각 출판사에서 준비한 '저자와의 만남'도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주현, 도중환, 김형경, 윤대녕, 한비아 등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들은 열정적인 독자들과의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KBS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는 문학 낭독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정용실 아나운서는 "평소에 책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각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한 권씩 들고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는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들고 온 신윤주 아나운서는 "《어린 왕자》처럼 인생에 대해 잔잔한 성찰을 던져주는 이 책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며 페스티벌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원근 각지서 가족단위 방문객, 책 매니아들 발길 이어져

평소 주차장으로 쓰이던 삭막한 거리는 부스에 진열된 색색의 책과 사람들이 얽혀 마치 장터에 온 듯한 훈훈한 풍경을 선보였다. 두 손 가득 책 보따리를 들고 책 구경에 몰두하던 한 독자는 "작가지망생인데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 왔다. 다양한 책을 한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렴한 가격에 평소에 사고 싶었던 책을 많이 샀다. 올해가 처음이라 많은 기대를 갖고 왔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수원에서부터 두 자매를 데리고 나온 한 학부모는,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고르러 나왔는데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인 자녀들에게 사줄 만한 책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직접 책을 가져와서 교환하거나 파는 '와우 책벼룩시장'은 인근 지역뿐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활기를 띠었다. 걷고 싶은 거리에 자신이 아끼던 책들을 소담스럽게 진열해 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던 사



문학 낭독회에 참여한 신윤주 KBS 아나운서.

람들은, 책을 찾는 발길이 뚝뚝이라도 이런 색다른 경험 자체를 즐기는 듯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냈다.

행사장 곳곳마다 페스티벌의 실질적인 운영요원인 리더스(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지만, 특히 와우책시장은 시민들의 문의가 잦은 곳이라 리더스들은 행사 진행에 여념이 없었다. 시종일관 상냥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던 한 대학생 리더스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나, 책에 관심있는 분들이 먼 지역에서도 많이들 들른다"며 "시민들이 보던 책을 갖고 와서 직접 팔기도 하고 교환도 할 수 있어 반응이 무척 좋다"고 전했다.

구연동화·북크로싱·책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 '좋은 책 토론회도

<함께 읽는 책>은 흥대 공공미술가들의 손으로 꾸며진 주차장 거리 '책 놀이터'에서 펼쳐지는 도서 관련 각 단체 및 커뮤니티의 참여 프로그램이다. 소공연과 북크로싱, 동화책 읽어주기, 책보물찾기, 보드북 카페 등 다양한 책 놀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책놀이터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온 학부모들, 주말에 책 잔치를 즐기러 나온 가족들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한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은 할머니들의 구수한 구연동화에 신이 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내내 즐거운 분위기였다. 북크로싱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손때 묻은 책을 기증한 후 새로운 주인을 궁급해 하며 책장 주위를 맴돌다 가기도 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책 만드는 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들은 색종이를 직접 오리고 붙여서 작은 책을 만들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우리가 쓰는 책>은 와우북페스티벌 사무국 주관으로 영화감독의 책읽기, 새로운 시읽기 방식의 모색, 일러스트/디자인 그룹전과 청소년 영상도서전 등을 통해 새로운 독서 방법과 창작 행위를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30일 저녁 6시엔, 서울 편집인클럽 주최로 에디터 포럼 '좋은 책을 말하다'가 카페 ZIBE

에서 열렸다. 도서평론가 이권우씨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홍(웅진 리더스북 대표)·진현중(저술 및 번역가)·박수진(북플리오 편집차장)·김종만(우리교육 영업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거리 문화 축제로 첫 발 내딛어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출판인회의에 소속된 크고 작은 50여개의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개별 출판사들의 어려운 여건상 며칠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큰 행사를 치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번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매개로 출판계와 독자, 지역 주민, 문화단체, 공공기관이 다함께 어우러져 벌인 문화축제란 점이다. 또한,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각 프로그램들이 세심하게 기획·집행됐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기도 했다. 물론 계

획되었던 프로그램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주요 프로그램의 동선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방문객들이 혼란스러워 했던 점 등 다소간의 미숙함은 어쩔 수 없었다.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혜경(사)출판인회의의 회장은 "첫 발걸음이니만큼 올해의 성과들을 잘 정리하고 부족한 점들은 잘 보완해 내년에는 더 내실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첫날 개막식엔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민음사 대표)과 김혜경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두루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박맹호 회장은 이날 부스를 둘러본 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미래로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며 "독서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러 나온 것을 보면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책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인터뷰 김혜경 조직위원장(사)출판인회의 회장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에듀테인먼트' 한마당
'책을 통해 출판인, 지역주민, 시민들 어우러져'**



제1회 서울외우북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맡은 (사)출판인회의 김혜경 회장(푸른숲 대표)은 "출판인들이 독자가 있는 현장에 책을 들고 찾아가 거리 축제를 펼친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대 인근과 마포구 일대에는 출판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대략 1,600여개 정도가 몰려 '출판의 중심지'라 할 수 있죠. 홍대 부근은 본래 문화적인 동네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 거리에 책을 전시하지는 의도죠"

김 위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가족이 함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유익한 '에듀테인먼트'의 성격을 띤 행사"로 규정했다. 즉 교육적이면서도 오락적인 성격을 가지는 행사의 모델이란 얘기다. 특히 출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홍대 부근의 클럽과 상인들, 지자체와 함께 협력한 점을 큰 성과로 꼽았다.

"길을 막고 주차공간을 차지해서 주변 상인들은 불편한 점이 많았을텐데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어요. 또 서울시와 마포구에서도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란 점을 높이 사 다방면으로 후원해 주었죠.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첫 행사인 만큼 홍보 부족과 운영상 미숙함도 드러났지만 대체로 무난한 편이라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출판사들이 규모가 작아서 인력을 배치하고 재정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함께 축제를 즐겨서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출판사들도 현장에서 독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책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대체로 흡족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리 축제로 자리잡도록 힘쓰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존의 '저자가 학교를 찾아가는 행사'를 꾸준히 계속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심어주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